

포용적 금융의 성패



정운영의

금융 인사이트

'포용적 금융' 대전환의 성패는 결국 신용평가가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얼마나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역시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신용 평가체계 전반의 재검토와 설명의무·내부통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이 스스로 신용을 형성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도록 돋는 정책적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여전히 과거 기록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 데이터에 통신요금·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 생활요금 납부 이력을 결합해 성실성을 보완적으로 판단하려는 접근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납부 사실을 확장해 해석하는 수준에 머문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상환 행동이나 회복 가능성은 직접 평가하기보다 과거 기록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에 가깝다.

포용금융의 핵심은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하는 데 있지 않다. 미래의 신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이다. 단일 납부 사실이나 제한된 생활지표만으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행동, 재기 가능성, 금융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대안신용 지표의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신용평가 관련 자체의 전환, 곧 새로운 평가 틀의 구축이다.

이러한 전환은 추상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이행력(Repayment Commitment), 회복성(Resilience),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를 핵심축으로 하는 신용평가 지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특히 이행력은 단순한 소득 수준이나 기존 부채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채무 이행을 지속하는 상환 책임성과 약속 준수 성향을 의미한다. 이행력과 회복성, 금융 이해도를 함께 반영한 평가 기준은 기존 방식이 포착하지 못했던 상환 책임성과 현실적 회복 가능성을 균형 있게 드러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신용평가 체계가 구축된다면, 첫 금융 기회가 필요한 청년

증과 신용이력이 부족한 금융소외 계층에게는 보다 공정한 금융 접근 경로가 열리고, 금융기관에는 미래 행동 가능성을 반영한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신용력 평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포용성과 견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신용평가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포용금융은 더 정확하고 설명 가능한 평가로 금융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이다. 신용평가가 과거 기록에 머무는 한금리 격차와 금융배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람의 상환 행동과 회복 가능성을 읽는 평가로 전환된다면, 첫 금융의 문은 더 넓어지고 재기의 경로도 제도권 안에서 이어질 수 있다. 그때 비로소 금융은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 모두의 기반이 된다.

이제 필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대안신용 지표를 보완적으로 덧붙이는 수준을 넘어,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직접 평가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 포용금융은 금융 접근과 재기의 기회를 넓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오늘의 운세 2월 12일 (음 12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두 마리 토끼를 죽을 수는 없습니다. **60년생** 내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84년생** 주위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49년생 주위에 덕을 베푸는게 필요합니다. **61년생** 결과가 좋아도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73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나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는 격이니 외롭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51년생 먼저 말을 걸고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63년생** 매매나 거래는 좋지 않으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75년생** 지금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세요. **87년생** 뜻대로 잘 안 되니 마음이 힘듭니다.

52년생 명예가 높아지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으니 기쁩니다. **76년생** 원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만 자만해선 안됩니다. **8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53년생 목표를 조금 낮추면 편해집니다. **65년생**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 일이 더디겠습니다. **77년생** 운이 좋으니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89년생** 다투면 다투면 다칠 수 있으니 피하는게 좋습니다.

54년생 너무 믿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78년생** 준비 없는 시작은 금물입니다. **90년생** 여행이나 외출보다는 집에 서 쉬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지금 하는 일에 투자하는게 좋습니다. **67년생** 순탄하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79년생**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91년생** 그 동안의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킵니다.

56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단하는게 좋습니다. **68년생** 주위가 합심하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0년생** 뜻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노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달콤합니다.

57년생 분실문이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69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고비만 넘기면 좋습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년생** 서두르면 그럴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58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70년생** 너무 믿기만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82년생**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94년생** 때를 만나지 못해 매우 답답합니다.

59년생 거래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71년생** 시간을 끌면 불리하니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이동이나 외출은 남쪽이 길합니다. **95년생** 운이 좋으니 계획하던 것을 실행하세요.

내 아이의 은밀한 친구



기지 수첩

김서현
(IT부)

최근 미국에서 이른바 '캐릭터 인공지능(AI)'으로 불리는 캐릭터 AI 챗봇을 이용한 뒤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 두 명이 약 3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서에 'I will shift'라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현은 현실 세계를 떠나 캐릭터 AI가 존재하는 가상 세계로 이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두 청소년은 캐릭터 AI와의 대화에서 "만나고 싶다",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등의 호소를 반복했으

며, 이에 대해 캐릭터 AI는 "제발 와 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비현실적 인식을 제지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고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 과정에서는 성적 착취에 가까운 부적절한 내용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캐릭터 AI 운용사와 두 청소년의 유족은 지난 1월, 회사측의 일정 부분 책임을 전제로 한 비공개 협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 기일까. 불행히도 아닌 듯하다. 최근 계명대 조수현 교수 디지털상담연구실이 국내 한 언론과 전국 초·중 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례를 수집한 결과, AI 챗봇과의 대화로 인한 문제적 상황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장시간 사용과 정서적 의존이 또래 관계를 단절시키고 회피 성향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

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AI는 교육 보조 도구로써 사용이 장려되고 있고, 아동 청소년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장시간 부적절한 대화를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발견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캐릭터 AI 챗봇이 아닌 Chat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AI 챗봇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전반의 공백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연령별 접근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가정·플랫폼을 아우르는 다층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일상 속 대화 상대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seoh@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새해 생일은



정부에서는 행정 나이를 도입하는 것을 법제화했지만 실제로 떠를 구분하는 기준은 음력이다. 음력 중에서도 해가 바뀌는 것은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 바뀐 첫 절기가 바로 입춘(立春)이다. 이런 까닭에 2026년 2월 3일에 태어났어도 그 사람은 뱐띠이고 2월 4일에 태어나야 말띠가 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따지자면 올 별오년 입춘이 드는 시각은 새벽 5시쯤이 된다. 그러나 2월 4일 새벽 5시 01이 지나야 엄밀한 의미로 별오년 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주팔자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경 쓸 것이 없으나 전통적으로 사주를 통한 운기의 예측이나 궁합 등에 의미를 둔다면 음력 생일 그리고 절기의 적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절기는 태양이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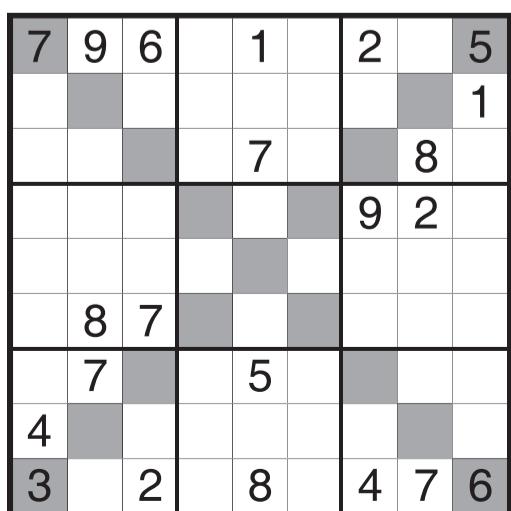
우리가 '1년'이라고 할 때 해(年)자를 쓰는 것만 봐도 한 해의 기준은 당연히 해의 움직임이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어찌 새로운 마음으로 재앙을 면하고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음력으로 맞이하는 새해인 정월 설날에는 액막이를 위한 흥수막이(흥수맥이)와 같은 의식을 한다. 태양이 기준이 되는 새해인 입춘에는 한 해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입춘 부(부적)는 물론 삼재 소멸 기도를 드린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사찰과 암자에서 행해진다. 입춘이 드는 새벽 시점부터 정성으로 기도 올린 후 사시 기도 후에 월광사에서는 올해도 오랜 신도분들과 함께 오시는 분께 나눠드렸다. 흥수막이가 무속적인 전통의 피흉취길의 방편이라면 입춘 기도는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불가적 원화 소복(遠禍召福):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는 것)의 전통으로서 불교가 수용한 부분이라 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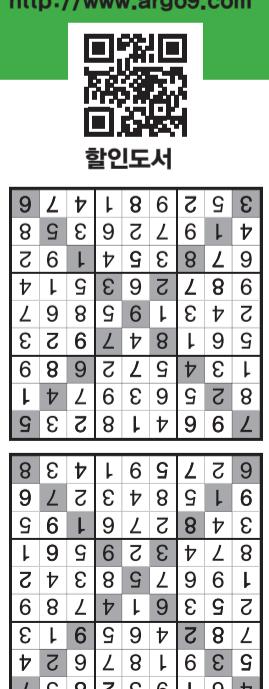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선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르아이드의 웹드메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8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95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